

SKC, 수원공장 이전 요구 “속병”

SK스카이뷰아파트 입주민 300명 집회 ... 소음·냄새·분진으로 불편


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SK스카이뷰 입주민 300여명은 SKC(대표 박장구) 수원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9월26일 열었다.

주민들은 아파트 옆 SKC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, 분진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원공장 이전을 촉구했다.

또 화학공장 바로 옆에 아파트 신축을 허가한 수원시를 맹비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.

SK스카이뷰는 판교와 울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SK케미칼 부지 32만㎡에 3498가구가 건설된 아파트단지 6월부터 입

주를 시작해 입주율이 85%에 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9/27>